

[중부권]

농업경영인 양성 ‘영암이 앞장’

영암군 ‘왕인 농업대학’이 현장 교육 중심의 영농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기 졸업생으로 24명을 배출한데 이어 해물 3월 20~50대 연령의 지역농업인 61명을 대상으로 2기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농업대학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농업경쟁력 확보와 소득향상을 목표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자는 데 취지를 두고 설립됐다. 이론교육 외에 고품질 재배기술습득을 위한 현장학습, 전문강사 초빙교육, 교육생간 탄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을 커리큘럼으로 구축했다.

오는 12월까지 매주 1회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지난달까지 4회의 이론교육을 마쳤으며, 5월 들어 본격적인 현장교육에 돌입한 상태다.

학습면 관상수 재배농장에서 관상수 가지치기 기술 실습교육을 실시했고 밤호박과 새싹 웨빙채소, 한리봉, 아스파라거스, 알스토로에메리아, 보리단지, 파프리카 유리온 실 등 관내 주요 소득 유망작목 재

농업인 61명 대상 ‘제2기 왕인농업대학’ 개설

작년 24명 졸업…이론 교육후 현장 탐방 흥행



배농장을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한 후 관내는 물론 타지역의 블루베리·오디 등 16개 작목 재배농장을 견학할 계획이다.

현장교육에 참여한 수강생 K모(45)씨는 “다른 농업교육이 교재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그들

회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시간 가운데 5회 이상 결석했기 때문이다.

주로 논농사에 종사해온 지난해 교육생들은 농업대학 졸업후 균자원보조 500만원과 자부담 500만원으로 관상수·석류·한리봉 등 시범 재배에 도전하고 있다.

영암군은 앞으로 졸업생들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1기 졸업생과 2기 재학생간의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등문화회도 결성하는 등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고소득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종선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담당은 “강사진이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교육내용이 피부에 와닿아 반응이 좋다”며 “무화과·대봉 등 정착된 소득작목 외에 새로운 품종 소득작목을 찾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도 영암군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축산 30명을 비롯해 식량작물 21명, 과수 6명, 채소 5명 등 모두 64명으로 조사됐다.

/영암=박제신기자 pjs@

나주 문평농공단지 100% 분양

LCD-TV공장 등 수도권 3개업체 합동 착공식…지역경제 청신호

나주 문평 농공단지가 100% 수도권 전자업체에 분양된다. 입주업체 3사가 착공식을 가짐으로써 산단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나주시는 최근 박종영 전남지사와 신정훈 나주시장, 강민규 나주시의회 의장과 시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CD 모니터 및 TV 생산과 검량·검정 사업을 추진하던 (주)알에스네트(주)한국검사정공사, (주)보입틀 등 3개 업체의 동시 착공식을 가졌다.

문평 농공단지는 민간투자로 지정되어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개발됐으며, 100% 분양이 완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알에스네트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TV와 USB 메모리 카드를 제조하는 코스타 상장사로, 3만2천㎡에 123억원을 투



자하게 된다.

(주)한국검사정공사는 수출·입화물 검사정 업무외에 IP-TV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신규사업에 1만6천㎡부지에 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도 파주에서 LCD모니터와 LCD TV를 생산하는 (주)보입틀은 1만2천㎡ 부지에 총 166억원을 투자해 세계적인 종합 디스플레이사로 거듭

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국제적 경제위기와 극심한 투자위축 등 악재 속에서도 이처럼 투자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시가 추진해온 ‘선 단지 조성, 후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에 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는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현기자 chjung@



담양 천 수상체험 ‘인기몰이’

4일 담양 대나무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담양천에서 수상 자전거를 타고 있다. 죽녹원과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 사이에 위치한 담양 천 수상체험은 대나무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민점이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화순군 이임용씨 ‘4월의 최우수공무원’

최기록·조영현씨 등 4명 ‘우수공무원’

화순군은 4일 ‘이 달(4월)의 최우수 공무원’에 문화관광과 이임용(48·6급·씨)을 선정했다.

이씨는 최근 영광에서 열린 제 48 회 전남도민체전에서 화순군이 7위의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이달의 우수 공무원으로는 최기록(52·급·행정지원과), 조영현(40·8급·종합민원과) 박종옥(41·7급·건설설계난관리과), 정회진(44·7급·이양면사무소)씨 등 4명이 뽑혔다.

최씨는 업무효율성 증대 등 행정혁신에, 조씨는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등 친절봉사행정 구현과 민원 행정 선진화에, 박씨는 지방세정 조기집행 추진과 주민편의 증대에, 정씨는 이양면의 특성화사업인 한약 육성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에 각각 기여한 공로를 크게 평가받았다.

군은 이 밖에도 이달의 우수부서로는 이번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으로 군 위상을 높이고 내년 화순에서 열릴 도민체전을 위한 체육시설 구축에 기여한 문화관광과(과장 손이홍)를 선정했다. /화순=조승수기자 css@

영암군 전국 첫 청소년 대상 삼화 직업교육

영암군이 자체제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스터레이션(삼화)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일련스터레이션(삼화)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영암군이 공모해 선정된 ‘장애 청소년 등 일련스터레이션 잡 트레이닝’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게 된다.

영암군은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다양한 문화접촉과 직업 교육 수강에 있는 점에 고려해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

침이다.

교육은 만화제작 기법과 캐릭터 디자인 등 소질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업능력을 높이고, 정서안정과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부가적 효과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특히 일련스터레이션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문화콘텐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별 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만화협회 광주·전남지부가 군의 위탁을 받아 주진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매달 21일 이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영암=박제신기자 pjs@

“자전거 타고 오면 할인쿠폰 드려요”

장흥군이 자전거를 타고 소매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따르면 4일부터 의류관 매점·야구·미용실·식당 등 50개의 관내 소매업소가 참여하며, 이를 업소는 할인업소 표찰을 부착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고객들

에게 5~1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르신·장애인 찾아 이미용 봉사

정남진 장흥농협

정남진 장흥농협(조합장 고종천)이 노인도우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미용 봉사단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회복지사와 미용사 등 6명으로 구성된 봉사단(단장 이관수)은 지난달부터 유치면과 부산면

에게 5~1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자 kykim@

에게 5~1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장흥군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군 전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